



간추린 청렴 소식

[1] 서울북부지검, '청렴 4행시 공모전, 플리마켓'



기관장과 함께 청렴 4행시 공모전 및 청렴 플리마켓을 개최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적극 제고하였습니다.

청렴 플리마켓 행사로 얻은 수익금으로 기관장 주재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2] 청주지검, '청렴을 담은 쿠키'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 표어와 공모전 우수작을 포춘쿠키에 담아 전 직원과 함께 나누며 청렴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패는 쿠키처럼 달콤하나 순간이고, 청렴은 물맛처럼 무미하나 영원하다.

[3] 창원지검, '청렴 계단 슬로건 공모전'



청렴 계단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우수작을 계단 띠로 제작·설치하여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청렴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렴의지도 다지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 장흥지청, '기관장의 청렴 가이드'

기관장과 함께 관내 청렴 문화 유적인 '다산초당'을 탐방하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교훈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탐방 도중 기관장이 직접 준비한 청렴퀴즈를 직원들이 풀어보며 청렴 지식도 함양하였습니다.



계묘년 새해 검찰총장 신년사

2023. 1. 1.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글로벌 경제 위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검찰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 뜻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 I.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검찰
- II. 국민 신뢰를 위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 III. 모두가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

보고, 읽고, 느끼며

생각해보기 인생 명언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 또 실패,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간다.

- 찰스 F. 키틀링 -

많은 사람들이 신년 다짐을 하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작심삼일이었다며 포기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올해는 그 다짐을 지속해보는건 어떨까요?

여의치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그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의지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올해는 꾸준함을 바탕으로 바라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청렴 상식이 쏙쏙!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여러분은 하마비(下馬碑)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하마비는 선열(先烈)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가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 얽힌 청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마비(下馬碑)

조선후기 순조시대의 문신 '서유망'이 성균관의 으뜸 자리인 '태학장의' 시절의 일입니다.

임금이 성균관의 공자 신위에 참배를 하던 중 어영대장의 말이 빨리 달리는 바람에 고삐를 제어하지 못해 하마비를 넘어 수십 보 안까지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서유망이 예에 의해서 그 마부를 잡아 가렸고, 어영대장은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임금은 이 사실을 듣고 도승지에게 "어영대장이 경솔하기는 했지만 대장이란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바, 서유망을 타일러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그대로 봉직하게 하라."고 명하였고 도승지는 서유망에게 이를 전하였으나 서유망은 "법에 따라 행한 일이지 어찌해서 다시 그것을 거두란 말이요."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시 서유망을 타이르려 하였으나 서유망은 "법을 지키는 일 때문에 도승지와 대신이 자꾸 찾아와 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사직하겠습니다."라며 재차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임금은 그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며 일을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도에 어긋나면 그 누구의 명이라도 따르지 않았던 서유망의 강직한 청렴함, 우리 시대에 되새겨 볼 교훈입니다

✓ 참고문헌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 이미지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상식이 쏙쏙!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글로벌 기업 A사는 70%가 넘는 시장 지배력을 과신하다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 ① 오만 ② 편견 ③ 아집

※ 힌트 : Monthly청렴 2022년 1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3. 1. 20.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2월 정답은 ① **퍼스트 펭귄**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축!
당첨

김OO(해남), 김OO(평택), 김OO(부산), 김OO(서울동부), 박OO(제천), 이OO(서울중앙), 채OO(대검), 최OO(서울남부), 홍OO(안양), 이OO(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열람등사 기록이 20여 건이나 되었는데 직원분들이 다 같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하루만에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동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자와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한 민원실 담당자의 말이 주변 소음과 겹쳐 잘 들리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 업무 환경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요!

